

# 황금연휴 갈 데없고 가정의 달 찾아올 이 없고... 독거노인들에겐 ‘잔인한 5월’

“아무데도 못 가고 답답해 죽겠어.”  
광주시 북구 각화동에서 만난 최순임(83) 할머니는 올해로 15년째 혼자 살고 있다.

코로나19 때문에 방에 갇혀 지내는 것도 지겹지만 밖에 나서기도 편치 않다. 황금연휴로 이어지는 가정의 달, 어버이날을 맞아 자녀들이 찾아오거나 함께 여행을 떠나는 또래 노인들을 보는 게 불편해서다.

그나마 예전에는 노인복지시설이나 경로당 등을 찾아 동병상련을 겪는 이들과 함께 위안을 했는데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여의치 않다.

최 할머니는 “요즘은 TV가 ‘유일한 친구’라며 ‘가짜 아파트 단지 앞에 앉아서 햇볕을 쬐는게 외부 활동의 전부’라고 했다.

황금연휴로 이어지는 가정의 달 5월을 홀로 보내야 하는 취약계층 노인들이 늘고 있다.

고령화가 심화되고 불경기 등으로 가정 형편이 어려워지면서 가족이 해체되는 등 독거노인이 되면 자식을 얼굴 보기도 쉽지 않다.

이들은 코로나19로 집안에 갇혀 시간을 보낼 거리도 마땅치 않고, 말을 건넬 사람도 없어 ‘우울한 5월’을 보내야 할 형편이다. 가족들이 한 데 모이고 여행하는 5월은

경로당 문 닫고 복지관 행사 끊겨  
잠시 햇볕 쬐는게 외출의 전부

광주 독거노인 1만1455명

시·자치구 결식 대책 등 마련

이들에게 ‘잔인한 달’이나 마찬가지다.

28일 만난 올해로 13년째 혼자 살고 있는 박복덕(89) 할머니도 ‘황금연휴’, ‘가정의 달’, ‘어버이날’ 얘기에 얼굴에 그늘이 졌다.

이날 박 할머니는 아파트 화단에 나가 철쭉을 끊어와 화분에 옮겨 심으며 외로움을 달랠다.

박 할머니는 “예전같으면 연휴 전 복지관이나 여러 단체에서 여는 행사들이 많아 심심하지 않았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없다”고 했다. 광주지역의 경우 9개 노인복지관, 1329개 경로당이 문을 닫은 상태다. 전남도 28개 노인복지관과 9121개의 경로당이 일시적으로 운영을 멈춘 상태다.

박 할머니는 “우리같은 늙은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어”라며 “그나마 복지관에서 음식이라도 주니 그 걱정은 하지 않는다”고 했다.

임판금(82) 할머니는 30년 째 혼자살아

왔지만 가족들이 모이는 연휴나 어버이날 등이 몰려있는 5월이면 항상 허전함이 밀려온다. 올해는 코로나로 밖을 나갈 수 없는 처지가 돼 복지관이나 경로당을 못가니 허전함을 더 느낄 수밖에 없다고 했다.

28일 광주시 등은 이같은 점을 감안, 1만1455명의 독거노인·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연휴기간(30일~5월3일) 돌봄 지원 및 결식 대책을 마련중이다.

5개 자치구는 대상 노인들에게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에게 안부전화로 실시하고 혹시 발생할 수 있는 긴급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수행기관별 대응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취약계층인 독거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기간 활동여부와 외출여부 등을 감지하는 응급안전서비스 대상자를 확대하고, 기존 설치된 장비에 대해 유지보수와 점검을 강화한다.

광주 27곳 무료급식소가 문을 닫고 있어 연휴기간 식사를 할 수 없는 우려대상자에게는 대체식과 식사배달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전남도도 연휴기간, 10만 4860명의 독거노인에 대해 독거노인 응급 안전 서비스와 대체식을 전달하며 위로하는 계획을 마련했다.

/글·사진=정병호 기자 jusbh@



28일 광주시 북구 각화동에 홀로 살고 있는 할머니들이 텔레비전의 채널을 하염없이 돌리거나(위) 잠시 아파트 화단에서 끊어와 철쭉을 매만지며 외로움을 달라고 있다.

## “골프장 캐디 총탄사고 군부대 사격장 폐쇄를” 담양군, 국방부에 건의

담양군이 최근 지역 내 한 골프장에서 발생한 총탄 사고와 관련, 인근 군부대 사격장 전면 폐쇄를 국방부와 육군본부 등에 건의했다.

담양군은 건의서에서 “해당 군부대가 설치될 당시, 주변에는 민가가 거의 없었으나 점차 지역개발이 이뤄지면서 사격장 주변에도 관광시설, 골프장, 전원주택 등 각종 시설이 조성됐거나 들어설 예정”이라며 “주민의 생명·재산 보호·안전보장 측면을 볼 때 해당 군 사격장을 폐쇄해야 한다”고 밝혔다.

담양군은 또 “군 부대 사격장이 골프장과 가까운 거리에 인접, 관광객들에게 불안감을 주는 등 담양 관광산업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폐쇄조치가 불가하다면 동행 방아막 등 안전장치 개선이 이뤄질 때까지 폐쇄해달라”고 건의했다.

한편, 지난 4월 23일 오후 4시 40분께 담양군 R골프장에서 20대 여성 캐디가 라운딩 동안 중 갑자기 머리에 피를 흘리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져 머리에 탄두 제거 수술을 받고 치료를 받고 있다.

육본 등은 민간인 총상 사고와 관련, 당시 군부대 사격장에서 이뤄진 개인화기 사격 과정의 문제점 등을 정밀 조사중이다.

/담양=노영찬 기자 nyc@



**Vitamin House**  
구입문의 1588-8529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짝 채운

## 시베리안 차가버섯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

## 바람잘 날 없는 광주 남구청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오랜 기간 임대료를 내지 않는 남구청사 내 임대사업자인 ㈜광주메가몰을 상대로 부동산 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밀린 임대료를 내지 않아 해당 부동산을 비우고 넘겨달라는 의도로 제기한 소송이라는 점에서 청사 내 영업중인 소상공인들의 피해도 우려되고 있다.

광주지법 민사 11부(부장판사 전일호)는 캠코가 ㈜광주메가몰을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인도 청구 소송'에서 캠코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3회 이상의 임대료 연체로 계약 해지를 통고해 임대차계약이 종료됐다”면서 “광주메가몰은 캠코에게 점유한 부분을 반환·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캠코는 지난 2013년 300억원이 넘는 돈을 들여 남구청사를 리모델링한 뒤 2035년까지 22년간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남구로부터 해당 공간에 대한 관리·개발 사무를 위탁받았다.

임대료 연체 광주메가몰 상대 이번엔 부동산 인도 소송  
법원, 자산관리공사 손 들어줘  
영업 중인 소상공인 피해 우려

캠코는 이후 지난 2017년 광주메가몰과 9년 간 임대차계약을 맺었는데, 광주메가몰이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밀린 관리비와 임대료 4억600여만원을 내지 않자 지난해 2월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얼마 뒤 소송을 냈다.

남구 안팎에서는 캠코가 이번 소송을 통해 메가몰 대신 다른 임대사업자를 찾아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기존 메가몰측과 계약을 맺고 영업을 하고 있는 업체들의 불안한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이들 점포들은 수수료매장으로 권리금, 보증금 없이 인테리어 비용으로 최소 3000만원에서 4억까지 투자해 운영하고 있다.

남구청사 지하1층부터 지상 3층까지는 임대차계약 초기만 해도 식당과 스포츠, 의료 매장 등 56개 점포가 입주했었지만 현재는 7곳만 남아있는 상태다. 대부분 입주초기부터 장사가 안돼 견디다 못해 문을 닫았고 그나마 영업을 하는 곳은 4곳에 불과하다. 건물 내 입점한 전자제품 판매점과 커피숍, 가구백화점 등은 메가몰과 관계 없이 운영되고 있다.

남구는 내심 반기는 분위기다. 캠코를 통해 투입된 300억원이 넘는 청사 리모델링 비용을 임대사업 활성화로 상환해야 하는 상황에서 신규 입자인 유치가 불가능한 현재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임대수의 저조로 상환해야 할 위탁개발사업비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게 남구 판단이다.

남구는 이같은 점을 감안, 최근 남구청장을 단장으로 ‘남구청사 임대 활성화 데스크포스’를 구성해 매장 가치를 높이는 방안 마련에 나섰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고교 온라인 수업 중 성기 노출 화상 ‘황당’

학생 접속 화상에 돌출 장면 퍼  
광주교육청, 경찰에 수사 의뢰

지역의 한 고등학교에서 온라인 수업 중 학생들이 접속한 화상에 성기가 노출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8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전 광주 무 고교 1학년 온라인 수업 과정에서 한 남성의 성기가 노출됐다. 사건은 실시간 화상으로 교사와 학생들의 얼굴을 띄워놓고 진행되는 쌍방향 수업 중에 발생했다. 수업 중 학생 한 명이 질문 등 발언을 요청했고, 교사는 발언권을 줬다. 발언권을 주면 해당 학생의 모습을 수업에 참가한 학생 전체가 볼 수 있다.

하지만 화면에는 학생의 얼굴이 아닌 남자의 특정부위가 보였고, 화들짝 놀란 교사는 곧바로 웹 화면을 끄고 수업을 중지했다. 하지만 수업에 참여한 남녀 학생들이 이 장면을 목격했다.

황당한 ‘온라인 노출’ 사건을 접한 광주

시교육청은 광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로그인 기록 등을 추적해 온라인 노출 폭력을 저지른 사람을 찾는 등 수사를 하고 있다.

시 교육청은 재발 방지를 위해 학생 등을 상대로 정보통신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학생과 교사에 대한 심리안정 대책을 진행 중이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사와 학생들이 충격으로 인해 심리 상담을 받았다”며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비대면수업을 하는 데 일어난선 안될 일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 “기한내 서류 미제출 이유 입찰 참가자격 제한은 부당”

법원 “한전 처분 위법” 판결

1순위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되고 기한 내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찰 참가 자격까지 제한한 한국전력공사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 2부(부장판사 이기리)는 A환경이 한국전력을 상대로 제기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환경이 기한 내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입찰

참의 공정한 경쟁을 해칠 게 명백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한국전력공사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이행능력 등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할 뿐 아니라 공정한 경쟁을 해칠 게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가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A환경이 적격심사 포기서를 2일 늦게 낸 데 따른 공익침해 정도와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으로 A환경이 입

게될 불이익을 비교·교과했 때 입찰참가 자격 제한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는 지도 의문”이라고 밝혔다.

A환경은 지난해 4월 폐기물 처리용역 입찰에 참여, 1순위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뒤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라는 한전측 통보를 받았다. A환경은 이후 관련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일부 접수가 미달된 사실을 확인하고도 한전측이 통보한 기한을 이를 넘겨 적격심사포기서를 냈다.

한전은 정당한 이유없이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점을 들어 1.5개월간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했고 A환경은 처분에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